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인문학 관련 행사가 열리고 관련된 책도 쏟아져 나옵니다. 정작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나 학술 현장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현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나 문제해결의 실마리 또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서양의 고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현(先賢)들이 남긴 유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나아가 그 문화적 자산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적 자산을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반사람들도 읽고 각자의 문제해결에 도

움을 얻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조선 중기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글을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다시 옮기고 풀어 쓰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본 사업단은 율곡 선생의 글들을 여러 해에 걸쳐 소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오는 말 중에, 교육부장관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지도 제법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육부총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입니다.

계층과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정책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야 당연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이 귀를 세우고 눈을 들이대는 관심사이다 보니 다른 행정 부처에 비해 말이 많습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런 뜻에서 선생의 교육사상이 오롯이 녹아있

는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시사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본 사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편찬하였고, 대학생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교육을 새롭게 살피고 국가가 번성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19. 09. 20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2001년 하와이대학에 방문연구자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수업 청강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움(help)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시아계 혼혈인이었는데 인상도 좋고, 학생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한번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상 촬영에 능력이 있는 아들이 학교 행사에 쓰려고 만든 영상을 봤는데 재미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자녀가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그녀의 말은 당시 저에게 상당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본 만화책에 등장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습은 가분수라고 해서 머리가 아주 큰 아이거나, 꺼벙이 안경이라고 하는 크고 진한 검정색 테로 두꺼운 알을 둘러싼 안경을 쓴 아이였습니다.

당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지구인과 화성인처럼 이질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남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끄는 사람은 지식만이 아니라 체력도 필요합니다. 미국 명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운동 관련 특활활동을 중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 활동을 통해 강인한 체력은 물론이고 목적의식, 인내력, 공동체의식 등 리더가 갖추어야 할 품성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적 인재와 더불어 리더 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나 종교 기관 종사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자고 합니다.

리더는 지식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덕성입니다. 지식과 체력을 떠받치는 인격입니다. 지식과 체력이 탁월한 리더가 덕성이 없다면 결과는 끔찍합니다.

율곡은 『학교모범』에서 조선의 리더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리더를 말입니다.

율곡의 소망은 율곡 당시만의 소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진정한 리더를 갈망합니다. 지식과 체력과 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선 율곡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낯선 길을 떠날 때 경험 많은 여행자의 조언을 청하는 심정으로요.

2019.9.20

선병삼